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팀명	대전대성고등학교(쿠스토스)
작품명	학생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 유해물질 청정지역
1. ※ 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만든 지도의 사진, 그림, 캡처 등 (1~2쪽)	
	
학교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지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
	
1순위~10순위까지 선정	골목에 위치한 편의점

2. ※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정
 ※ 개선방안을 공유하거나 제시하여 환류 또는 실제 개선되는 과정
 ※ 위험 요소를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개선한 사례 (3쪽 내외)

·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정

→ 라틴어로 ‘수호자’ 라는 의미의 대전대성고등학교의 쿠스토스(선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도부) 동아리 정기 모임에서 학교 밖 위험 요인에 대해 토론 하던 중 최근 청소년이 큰 제재나 어려움 없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했고 이 사항이 적발되어 해당 편의점이 법적조치와 불이익을 받게 된 일이 있었다는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쿠스토스(선도부) 학생들은 이런 일이 매우 흔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실제 많은 학생이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였다.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생겨난 ‘델구’ 라는 용어는 신조어로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청소년 유해 물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고 일정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쿠스토스(선도부) 구성원들이 이런 사회적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도록 돕는 활동을 한다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법적조치를 통해 편의점 및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물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요즘 청소년 중 겉모습만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점이 손해를 입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교 주변 상점을 찾아가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노력을 한다면 그 어떤 법적조치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데 생각이 일치했고 어떤 노력들이 가능한지 협의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금지 팸말과 서약서를 제작하여 동참하는 상점에 대전대성고등학교 이름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둘째, 학교 주변 지도를 확인하며 대전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음식점 10곳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편의점과 음식점 사장님을 직접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넷째, 동참의사를 밝힌 상점을 찾아가 사장님께 서약서를 받고 학생들과 사장님이 직접 팻말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였다.

· 개선 방안을 공유하거나 제시하여 환류 또는 실제 개선되는 과정

→ 실제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일은 사장님들께서 학생들의 활동을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해 주실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다. 하지만 예상외로 사장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응해주셨고, 오히려 학생들을 격려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반응을 보여 활동하는 학생들이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주민들이 인증된 편의점과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대전대성고등학교 인증 팻말을 보고 선한 뜻에 힘을 모아주는 편의점과 음식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었다. 모든 활동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이 밀집되어 있는 학군 지역인 대전 중구 목동에 주민과 학교가 올바른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뿌듯함도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상점을 선정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팻말을 부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동참하겠다는 상점이 자발적으로 생기고, 대전대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타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주변 상점과 협조해 나간다면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 꿈꿨던 청소년 유해 물질 청정지역이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